

## 어촌체험마을을 확대 조성 다기능종합어항 건설 촉진

### 해양수산부 '어업의 소득증대 방안' 마련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촌의 어업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기반정비 및 제도개선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가소득 향상을 위한 어업의 소득증대방안'을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어촌이 도시민과의 교류, 어업체험 등 체류형 관광을 통한 도시민 수용체제가 취약한 상황이라고 평가, 중장기 관점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 정비와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지원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업의 소득 확보중 수요측면에서 보면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주5일근무제, 휴가분산제 등으로 어촌

의 수용체제가 정비될 경우 단일형·일과성의 어촌방문에서 숙박형·반복성의 교류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드웨어 분야 기반 정비로서는 △블루투어리즘 추진거점으로 어촌체험마을 확대 조성 △체험어촌의 민박시설 지원 △관광·유통·가공 등 다기능 종합어항 건설의 촉진 △제도개선으로 어항배후부지내에 식당, 특산물판매장, 숙박시설, 해수탕, 수족관, 해중전망탑 등 수익성 시설이 가능하도록 어항부지 매각 확대 △어촌민속전시관 및 어촌별 소규모 전시관을 건립 △어촌의 특산물 개발촉진 및 브랜드화 등

소프트웨어 분야 기반 정비로서는 △지역주민을 대

상으로 관광마인드 함양 △특색있는 지역별 어식문화의 상품화 △아름다운 어촌 100선 선정 중점 홍보 등

시스템 구축 및 제도분야 정비로서는 △어촌관광자원 D/B화의 확대와 도시민 등 수요층과 체험관광추진 어가·마을·지역 간의 Network 형성,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블루투어리즘 포털사이트 구축 △개인소유 양식장을 주말어장으로 이용, 현장체험 프로그램화 △기존어선을 낚시어선으로 대체 건조하여 증가하는 낚시 관광객에게 편안한 낚시어선 제공 △민간과 정부의 각종사업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기반 확립 △어촌계와 대도시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관광 및 직거래 기반을 확보 등이다.

어항내 박지의 수질정화기술

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본서에서는 수질개선계획 수립순서, 유동·수질·저질·생물조사 등 수질오염 파악을 위한 조사항목, 수질정화 기술의 분류와 항내 해수도 입공 등을 소개하고 있어 항내 수질오염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질환경 개선방책의 실시에 있어 자료로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항시공 신공법'에서는 일본에서 실시된 시공사례

중 PSC(Prestressed Concrete) 하이브리드 부방파제, PBS (Piles and Blocks Structure) 공법, CALMOS (Calm Offshore Structure) 공법 등 최근에 시공실적이 증가하는 공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본 공법에 의한 시공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유의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현장 기술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중쓰레기 처리 대책 마련

김호식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 10일 최근 마을어장 등 수중쓰레기의 심각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수중쓰레기 처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오전 강릉시 강동면 정동1리 강동농협2층 회의실에서 정동1리 어촌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어민간담회에서 "지난해 태풍 루사로 발생한 해안, 백사장의 해양쓰레기는 예비비 144억원을 들여 지난해 말 모두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

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들 스스로 어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동진1리 어촌계가 자율관리어업 예산 지원대상 공동체로 선정돼 이날 직접 어촌계를 방문하게 됐다"며 "수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율관리어업과 바다목장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동해안에 추진되는 바다목장화사업은 올 연말까지 심사를 벌여 강릉 정동진, 속초 대포, 경북 울

진, 경남 기장 등 4곳 가운데 1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다목장화사업지로 선정되면 2004년부터 10여년간 총 414억원의 국비가 투자된다.

김장관은 이날 주문진읍 영진리 한 음식점에서 영동지역 수산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수산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속초시 대포항과 고성군 명파전복양식장, 대진항로표지관리로 등을 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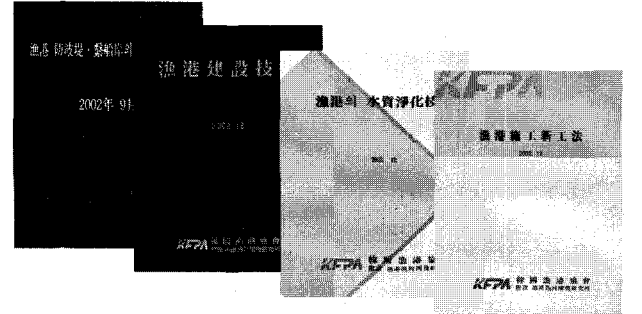
## '어항시공 신공법' 등 기술도서 4종 발간

한국어항협회는 최근 조사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어항방파제·계선안의 설계계산예'에 이어 어항건설과 관련된 '어항건설기술', '어항의 수질정화기술', '어항시공 신공법' 등 기술도서 4종을 발간했다.

'어항건설기술'은 설계조건, 기초, 외곽시설, 계류시설, 수역시설, 수송시설, 어항환경정비시설, 어촌환경정비시설 등 총 800여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촌 어항 건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술하여 어촌 어항의 설계실무 및 이

해에 꼭 필요한 참고서이다. '어항의 수질정화기술'은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희망찬 200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떠올라 온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저 태양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어항인 여러분!  
2003년을 도약하는 해로 삼아 강조하는 것은 올해가 우리나라 국운성쇠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는 첫 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한 국민적 의지와 민주적 절차로 새천년의 첫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선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을 뒤흔든 치열한 선거전에도 불구하고 승자도 패자도 서로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우리 헌정사상 보기 드문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난해의 연장선상에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닥쳐올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이룩할 수 있는 각오를 다지게 해줍니다.

특히 우리 어항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새해에 큰 도약의 기대에 부풀어 있는 이유는 새천년의 첫 번째 대통령에 취임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과거 해양수산부장관직을 역임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구보다 바다에 대한 이해와 경험과 실무로 무장된 대통령을 맞는 어항인들이 이같은 도약의 부푼 꿈에 젖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이에 발맞춰 우리 한국어항협회도 2003년 새해를 '대 도약의 해'로 설정하고 어느 때보다 각오를 새롭게 하여 획기적인 발전을 다지겠다는 야심찬 한 해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어항협회는 올해 크게 3가지의 사업 목표를 갖고 대 도약을 시도할 작정입니다. 그 내용은 첫째, 어촌어항의 종합적 발전방향 모색, 둘째, 어촌어항 기술발전과 기술정보 및 홍보강화, 셋째, 어항환경정화사업의 중점추진 등을 목표로 획기적인 발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촌어항기술개발 확대를 위해 올

해도 어항시공 신기술 신공법과 관련한 각종 자료집을 발간하고 제6회 한·일어항기술교류회의를 서울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어항환경정화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중 침적폐기물정화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성과를 배가시킬 계획이며, 어촌어항문화 창달을 위해 기존의 어촌어항지역 장학사업 및 자매결연사업과 함께 어촌어항 어린이 사생대회 그리고 어촌어항 전통민요를 발굴함으로써 어촌어항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속에 친근하게 녹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어촌어항정비법이 조속히 제정,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어항인들의 숙원사업인 어항회관 건립의 힘찬 걸음을 내디딜 각오입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사업들은 그동안 우리 협회가 수많은 고통과 시련속에서 척박한 땅에 한 알의 밀알을 심는 심정으로 전개해 왔던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이 모든 사업들을 집대성하여 어항인들이 우뚝 설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그런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어항협회가 2003년을 대 도약의 해로 설정한 것은 이 같은 우리의 각오와 의지를 재천명하여 새로운 발전의 동기로 삼아야 하는 시대적 요구 때문입니다.

기회는 결코 많지 않으며 자주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는 새로운 민족의 서기가 서려 있습니다. 이 서기를 한국어항협회 발전의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역사엔 가정이 없습니다. 냉철한 이성과 실천하는 행동만이 역사를 현실로 탈바꿈 시켜 줍니다.

이는 한 마디로 새로운 대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확신과 번영과 그리고 도약의 2003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새해를 만듭시다.

힘과 뜻을 모아 대도약하자

# 해양수산부 67개 어촌권역 종합개발

오는 2008년까지 67개 어촌 권역의 방파제, 선착장 등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시설 개선사업이 집중 시행된다.

또한 총 49개소의 어촌체험마을에 주차장, 진입로 등 관광기반시설이 조성되는 등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확충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국고 215억원, 지방비 194억원 등 총 431억원을 들여 37개 어촌권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펼치는 등 오는 2008년까지 총 1천816억 원을 투자, 67개 어촌 권역 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어촌 권역은 중심항 및 포구를 중심으로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환경개선 및 복지시설이 집중 확충되며 올해는 부산 기장, 인천 옹진, 울산 울산 등 15개 신규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지난해에 이어 22개 권역에 대한 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쳐진다.

내년부터는 오는 2008년까지 30개 권역을 추가로 선정해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

으로 권역당 평균 35억 원을 투자해 선착장, 물양장 등 어선계류시설, 진입로, 유통시설 및 관광시설, 급수·상하수도 등 환경시설 및 복지회관 등 각종 시설이 확충된다.

해양수산부는 개발여건이 구비되고 성장 잠재력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 어촌을 선정하는 한편 선정된 어촌을

권역별로 타 수산분야 및 지역개발계획 등과 연계해 종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올해 11개소에 5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오는 2008년까지 총 49개소에 245억 원을 투자해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도 지원한다.

## 해양수산부 '아름다운 어촌 100곳' 선정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촌관광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경관, 특산물, 어업체험여건, 접근성 등이 뛰어난 아름다운 어촌 100곳을 선정,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천800여개 어촌 가운데 170여개 마을을 시·군으로부터 '아름다운 어촌'으로 추천받아 이들을 대상으로 막바지 심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어촌을 시·도별로 보면 부산 4, 인천 2, 울산 3, 경기 3, 강원 14, 충남 9, 전북 7, 전남 30, 경북 7, 경남 14, 제

주 7곳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아름다운 어촌 선정이 완료되면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와 '아름다운 어촌 100선'이라는 별도 책자를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또 아름다운 어촌으로 선정된 마을들을 경관, 특산물, 관광 등 테마

별 분류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주 5일근무제 확대로 관광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아름다운 어촌 선정을 통해 어촌관광을 대중화하고 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진·아야진항 관광어항기능 대폭 보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과 토성면 아야진항이 수산업 및 관광기능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어항으로 개발된다. 최근 고성군과 해양수산부

에 따르면 국가어항 정비계획에 따라 대진항과 아야진항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 오는 2004년부터 항내 출렁거름을 방지하는 시설과 방파제 등 어항 시설을 대폭 보완하게 된다.

대진항 정비계획을 보면 선박 입·출항 개선을 위해 북방파제 길이를 100m 늘려 370m로 확충하고 항내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 소통구 설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시설 등을 도입하게 된다. 또 아야진항은 입출항 편리를 위해 북방파제를 150m 늘려 525m로 확충하고 기존물량장 보강과 함께 항내 수

## 물에 뜨는 '부방파제' 국내최초 원전항에 설치

국내 처음으로 물에 뜨는 부방파제가 경남 원전항에 설치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마산시 구산면 심리 국가어항인 원전항 개발을 위해 오는 2006년까지 21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파제 757m, 물양장 470m, 부잔교3기 등을 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57m의 방파제 가운데 파도의 주방향인 원전항 서북쪽 500m는 사석이나 콘크리트 블록 등을 해저에서 수면위로 쌓아 파도를 막는 기존의 중력식 방파제를 설치하고, 파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동쪽에는 부유식 방파제가 설치된다.

부방파제는 철판으로 만

든 60×7.5×2.5m 크기의 직육면체 4개를 체인으로 연결한 뒤, 바다밑 콘크리트 블록에 묶어두면 속이 텅 빈 방파제가 부력에 의해 20% 정도 물 아래 잠긴다.

부방파제는 기상 악화시 파랑에너지가 감소시켜 어선들을 보호하며, 평상시에는 부방파제 아래로 해수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수질오염 등을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방파제와 함께 해양공원과 호안 등을 조성, 원전항을 시민들이 낚시 등을 즐길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어항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개선을 위해 남방파제 해수 소통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해안도로 93m

를 신설하고 항구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기로 했다.

## 군산 비응항 건설 올 상반기중 착공

군산 내항을 대체할 비응항이 올해부터 민간자본과 국비로 건설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주)서해피셔리나를 이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올해 상반기중 항구 건설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서해피셔리나는 국비

481억원, 자기 자본 505억원 등 986억 원을 들여 군산시 소룡동 비응도 동남쪽에 12만5천평의 부지와 방파제 등 외곽시설 1.8km, 물양장 1.2km를 갖춘 항을 건설한다. (주)서해피셔리나는 2006년 6월 공사를 마치고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되, 30년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갖는다.

**바다환경보호**    **바다사랑**    **나라사랑**    **남몰래 버린 오물**  
**캠 페 인**    **우리모두 앞장서자**    **나 모르게 오는 피해**

## 2003년도 일본 수산기반 정비 주요시책

일본 수산청은 수산기본법과 어항어장정비법에 근거한 새로운 사업제도 아래서 2002년도부터 시작한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관련된 소프트웨어 시책과의 연계 계획을 하고, 종합적이면서 효율적인 수산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시책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공급체계의 정비: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정비, 안전대책의 추진 △수산업의 구조개혁: 어협 합병, 산지시장의 통합, 자원관리계획의 추진 등 필요한 기반정비, 지원사업의 추

진 △도시와 어촌의 공생대류에 의한 지역의 활성화: 도시어촌교류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정비, 환경조건정비의 추진 △자연과 공생하는 풍요로운 연안역환경의 창조: 풍요로운 해안, 해양환경의 창조를 지향한 사업의 추진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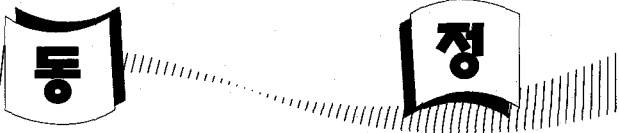
수산기반정비사업의 사업별내용

사업명	사업의 내용
특정어항어장 정비사업	어항어장정비법에 근거하여 어항 및 어장을 일체적으로 정비하는 기간적사업. (종래의 「어항수축사업」을 어장정비까지확장한 것)
지역수산물공급 기반정비사업	공동어업권 구역내 어장과 제1종어항 등의 일체적인 정비를 행하는 사업. 중·소규모의 어장과 어항의 정비
광역수산물공급 기반정비사업	· 제3종 또는 제4종어항 등 생산, 유통기능의 거점이 되는 어항의 정비. 대규모 어항의 정비, 어장정비도 포함하여도 좋음
광역어항 정비사업	· 공동어업권 구역 밖에서의 대규모 어장의 정비
광역어장 정비사업	어장정비단독사업
어항어장기능 고도화사업	기존의 어항, 어장의 기능향상, 유지보강, 소규모개발, 보수 등 사업. 신기술을 응용한 시설정비. 종래의 국부개발사업 등
어장환경보전 창조사업	어장의 생산력회복을 계획하기 위한 슬러지 제거, 복사(覆砂), 조장·간석 등 조성사업. 일정기간 금어를 시행하여 자원보호, 압초의 정비
어항수역환경 보전대책사업	어항구역내의 슬러지 제거, 복사, 조장조성 등 사업. 종래의 어장회복을 추가한 사업
어항환경 정비사업	어항구역내의 식재, 휴게소, 광장, 친수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 종래의 사업과 동일
어업집락환경 정비사업	어업집락도, 수산 음·잡용수시설, 어업집락배수시설, 녹지 등 정비어촌의 생활환경정비를 계획한 사업. 종래의 사업과 동일
어촌종합 정비사업	조건이 열악한 지역인 어항, 어장, 어촌의 종합적인 정비사업. 종래의 사업에 어장정비를 추가한 사업
어항이용 조정사업	유어선 등을 분리수용하기 위한 외곽시설, 계류시설 등의 정비사업. 종래의 사업과 동일

2003년도 수산관계 공공사업정부안의 개요

(금액단위: 백만원)

사 항	2003년도 당초예산	2003년도 정부안							전년 대비
		그외 분야	중점 4 분야				합계		
			Ⅱ	지역	고령화	환경	소계		
공공사업계(I+II+III)	21,307	44,631	402	44,567	53,445	59,513	157,927	202,558	0.951
수산기반+어항해안(I+II)	21,246	44,009	402	44,567	53,445	59,513	157,927	201,936	0.950
I. 수산기반정비	198,829	41,578	230	39,635	52,168	55,376	147,409	188,987	0.951
수산물공급기반정비	164,910	31,581	0	23,656	48,408	52,002	124,066	155,647	0.944
지향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	16,880	602	0	1,970	10,000	3,053	15,023	15,625	0.926
지역수산물공급기반정비사업	64,686	18,960	0	6,322	10,558	26,948	43,828	62,788	0.971
광역수산물공급기반정비사업	72,080	5,168	0	15,051	26,587	20,084	61,722	66,890	0.928
광역어항정비사업	58,307	5,168	0	15,051	26,587	7,470	49,108	54,276	0.931
광역어장정비사업	13,773	0	0	0	0	12,614	12,614	12,614	0.916
어항어장기능고도화사업	11,264	6,851	0	313	1,263	1,917	3,493	10,344	0.918
수산자원환경정비	2,511	0	0	0	223	3,244	3,467	3,467	1.381
어장환경보전창조사업	2,311	0	0	0	223	2,985	3,208	3,208	1.388
어항수역환경보전대책사업	200	0	0	0	0	259	259	259	1.295
어촌종합정비	20,779	0	230	15,979	3,537	130	19,876	19,876	0.957
어항환경정비사업	3,100	0	0	2,096	852	0	2,948	2,948	0.951
어업집락환경정비사업	14,059	0	230	10,477	2,660	130	13,497	13,497	0.960
어항이용조정사업	2,713	0	0	2,580	0	0	2,580	2,580	0.951
어항이용조정사업	907	0	0	826	25	0	851	851	0.938
수산기반정비사업	752	729	0	0	0	0	0	729	0.970
보조물차액 등	8,136	7,859	0	0	0	0	0	7,859	0.966
어항관련도로정비(보조물차액포함)	1,741	1,409	0	0	0	0	0	1,409	0.809
II. 어항해안	13,635	2,431	172	4,932	1,277	4,137	10,518	12,949	0.950
해안보전시설정비사업	9,078	1,662	172	2,570	1,216	3,428	7,386	9,048	0.997
해안환경정비사업	3,704	0	0	2,302	61	709	3,072	3,072	0.829
공유지조성호안 등 정비종합보조사업	83	0	0	60	0	0	60	60	0.723
조사비 등	770	769	0	0	0	0	0	769	0.999
III. 재해복구	607	622	0	0	0	0	0	622	1.025



### 강원 제주지역 수산현장 방문 관계자 격려

▲김호식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3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산하기관단체 임원 신년 인사회를 주재, 6일에는 부산 광안대로 개통식에 참석, 7일에는 주한 이란대사를 접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서 환담, 8일에는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수산인신년교례회에 참석, 9, 10 양일은 군산 동해지역 해양수산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16일에는 제주도 해양수산현장을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성산어촌계 자율관리시범어업현장에 들러 해녀들을 격려, 22일에는 부산신항만 홍보관 개관식에 참석.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1월3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단체 임원 신년인사회에 참석, 7일에는 프레젠타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관 새정부 부를 위한 정부조직개편 세미나에 참석, 8일에는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수산인신년교례회에 참석, 9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신년인사회에 참석, 13일에는 프레젠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정책과정 포럼에 참석, 20일에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관 부패방지과 신뢰정부 구축세미나에 참석 이어 롯데호텔에서 열린 밝은사회서울중앙클럽 정기월례회의에 참석, 21일에는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최고위과정 신년교례회에 참석, 22일에는 해양전략연구소 주관 북한 해문제와 한국의 대응방안 포럼에 참석.

▲차석홍 수협중앙회장은 1월3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단체 임원 신년인사회에 참석, 8일에는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수산인신년교례회에 참석, 15일에는 충남 태안군 안면수협 회의실에서 열린 충남 전북 조합장협의회에 참석.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1월3일 광주시기관장 신년하례식에 참석, 20일에는 광주지방법원 가사인사조정위원회 2003년도 조정위원 위촉식 및 정기총회에 참석, 24일에는 제3회 교육정보대상 시상식에 참석.

▲정덕용 주식회사삼전사 회장은 1월3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월6일 대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 7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 9일에는 자유총연맹 신년인사회에 참석, 17일에는 조달청 주관 조달인의 상을 수상, 21일부터 25일까지는 일본 동경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세미나에 참석차 출장.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월3일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 7일에는 광주광역시 동구문화원 정기이사회에 참석, 8일에는 대한적십자사 제네바협약가입 100주년기념행사에 참석, 13일에는 전남 사회복지모금회 신년인사회에 참석, 16일에는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주최 제1회 산학협동포럼에 참석, 20일에는 광주지방법원 가사인사조정위원회 2003년도 조정위원 위촉식 및 정기총회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월3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 7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신년인사회를 주재, 14일에는 건설공제조합운영위원회에 참석, 15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이사회를 주재.

대학원파견 민경태(1.20) □ 과장급 인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파견 박준권(1.10) △세종연구소파견 김영환(1.30)

□계장급 인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파견 조진춘(1.1) △안전관리관실 해양방재담당관실 이현석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강신열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 이희영 △해운물류국 선원노정과 공두표 △항만국 항만정책과 오운열 △수산정책과 어업기술인력과 허만욱 △어업자원국 어업교섭지도과 강평현 △"자원관리과 김봉현 △국립수산과학원 김교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상용 △"노귀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김창환 △"오연국 △"김형대 △"남재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양영진 △"곽창현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김용환 △"오근섭 △"손영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과 장 문동식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장항출장소장 김성갑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만영 △제주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 장 허영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김동욱(1.8)

▲한국어항협회 △사무국장 겸 환경관리부장 황승택 △환경관리부차장 겸 기술개발부차장 최병원 △기획관리부과장 리승진 △어항901호선장(3급) 최동립 △어항905호선장(3급) 하용만 △어항906호선장(3급) 김성훈 △어항901호기관장(4급) 문상진 △어항904호기관장(4급) 김봉운 △어항907호기관장(4급) 김용호 △기획관리부 기능직 김성미 △환경관리부 기능직 박해신(1.1)

#### 인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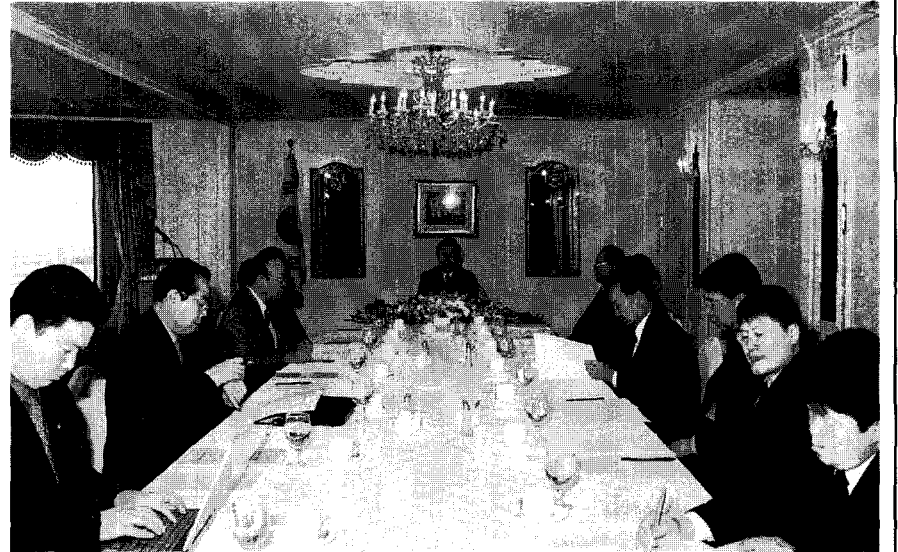
▲해양수산부 □국장급 임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조영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김진동(1.1) □국장급 인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평식 △중앙공무원교육원파견 서상범 △"이인수 △국방

#### 회 비 남 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인  
 ▲김철씨(호남대학교 교수)  
 ▲최영수씨(한국어항협회 자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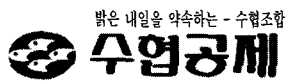
■ 김호식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3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단체 임원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 한국어항협회는 1월 21일 롯데호텔36층 피코크룸에서 제33차이사회를 개최하고 2002년도 결산 및 2003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에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1월 2일 협회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갖고 올 한해를 '대도약의 해'로 정하고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일치단결하여 목표를 향해 돌진하자고 당부했다.



## 어려울 때, 가장 큰 빛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험, 든든한 보험 - 수협공제







### 우유를 많이 마시면 살이 빠진다

영국의 처칠수상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어린 이에게 우유를 많이 먹이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우유와 유제품은 영양음료로서, 갓난아 이와 어린이의 생명을 지켜주고 정신과 신체를 발달시켜 주는 하늘의 식품으로서 이해되었 으며, 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제물로 사용되었고, 우유가 풍부하게 생산되면 삶의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였다.

이러한 우유가 살을 빼려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이어트의 적으로 생각되어 멀리하였으나, 이런 생각은 근거 없는 편견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테네시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 주는 영양소로 알려진 칼슘이 체중을 줄이고 일부 암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점점 나타나고 있다고 미국 MSNBC 방송 인터넷판이 10일 보도했다.

미국 테네시대학 연구팀은 '미국영양학회 저널'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칼슘과 관계된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분석,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이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유를 마시면 살이 쪼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오히려 칼슘을 매일 300mg(우유 약220g) 섭취하면 체중이 평균 2.7kg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칼슘이 지방을 태워 없애 체

내 축적을 막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또 칼슘을 적게 섭취하면 살이 찌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칼슘 결핍이 체중증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과체중이 칼슘 결핍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피듀대학 연구팀이 2년에 걸쳐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칼슘을 하루 1천mg(성인남자에 대한 권장량) 섭취하는 사람은 하루 섭취량이 600mg(성인여성에 대한 권장량)인 사람에 비해 체중과 지방이 더 줄어들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전체 칼로리 섭취량이 일반평균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평균이상 칼로리를 섭취했을 때는 칼슘 섭취와 상관없이 체지방이 축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보고서들은 또 칼슘 섭취가 일부 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립암연구소 저널'에 발표된 2건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이 적게 먹는 사람에 비해 결장암 위험이 35%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 '간호사건강조사' 자료를 보면 폐경여성은 해당되지 않지만 폐경전 여성의 경우 칼슘 섭취량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 비해 유방암 위험이 약 30%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칼슘 섭취가 난소암 위험도 감소시킨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 5.3.3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배합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 및 포장콘크리트로 구분되며 조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및 공칭강도의 조합에 의하여 표 5.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류가 나뉘어져 있다. 이들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규격품이라 하고(표준품과 특수품으로 구분된다) 통상구입자는 이들 종류중에서 사용목적에 적합한 콘크리트를 지정한다.

이외에 유동화콘크리트, 유동화콘크리트용 베이스콘크리트 등 표에 없는 조합된 콘크리트나 규격의 범위를 벗어난 콘크리트는 규격외품이라 한다. 규격외품 콘크리트일지라도 품질상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별주품의 명품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다.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배합은 규격품 및 별주품 모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구입자가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을 하고, 이들 지정된 사항 및 소정의 품질을 만족하도록 생산자가 정한다.

- a. 시멘트의 종류
- b. 골재의 종류
- c. 조골재의 최대치수
- d.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에 의한 구분, 구분 B의 골재를 사용할 경우는 알칼리 골재반응의 억제 방법
- e. 포화재료의 종류
- f. KS에 규정된 염화물 함유량의 상한치와 다를 경우는 그 상한치
- g. 공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
- h. KS에 규정된 공기량과 다를 경우는 그 값

#### I. 경량콘크리트의 경우는 콘크리트의 단위체적중량

- j. 콘크리트의 최고 또는 최저의 온도
- k. 물시멘트비의 상한치
- l. 단위수량의 상한치
- m. 단위시멘트량의 하한치 또는 상한치
- n.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는 유동화하기 전의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서 슬럼프 증대량(구입자가 d. 알칼리 총량에 의한 방법을 지정할 경우, 구입자는 유동화제에 의하여 포함되는 알칼리량을 생산자에게 통지한다)
- o. 기타 필요한 사항

#### 5.3.4 공칭강도

공칭강도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강도구분의 용어로 배합설계에 있어서 설계기준강도 이외의 강도 수준에 따라 배합강도를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그리고 공칭강도의 값은 표준품에서는 재령 28일, 특수품에서는 지정한 재령으로 그때까지 20±3℃의 수중양생을 한 경우에 얻어지는 압축강도의 값이다.

공칭강도는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성능, 품질의 저하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제시하는 3방법으로 정해지는 강도의 최대치를 지정한다.

① 설계기준강도에 의한 선정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공장의 변동계수는 10%정도 이하이고, 이 정도의 변동계수의 경우, 양쪽 배합강도의 차도 10% 이하로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설계기준강도와 같은 공칭강도를 선정하면 된다.

#### 압축강도의 시험은 KS F 2403 및 KS F 2405에 의해서 시행한다.

② 내구성 또는 수밀성에 의한 선정  
설계기반강도를 기초로 산출되는 물시멘트비가 내구성 또는 수밀성에서 요구되는 물시멘트비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 공장에서 준비되고 있는 시멘트물비와 압축강도와와의 관계식에서 내구성 또는 수밀성에서 정해지는 물시멘트비에 대한 압축강도를 구하고, 이 강도를 배합강도로 생각하여 이것이 얻어지는 공칭강도를 선정한다.

③ 단위시멘트량에 의한 선정  
생산자가 제시하는 콘크리트 배합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의하여 한도를 상회하는 단위시멘트량이 되는 공칭강도를 선정한다.

#### 5.4 콘크리트의 운반·치기

##### 5.4.1 일반

양질의 콘크리트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재빨리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은 공사 개시전에 시공조건, 콘크리트 수량,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공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시공계획의 입안에 있어서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검토한다.

- a. 전과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 b. 운반·타설의 설비 및 인원배치
- c. 운반로
- d. 타설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 e. 콘크리트의 타설순서 및 타설속도를 확정한다.

## 세이엔 이렇게 달라진다

대망의 2003년 새해를 맞이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달라지는 것들을 간략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 교육

△중학교 무상교육, 7차 교육과정 확대-중학1, 2학년까지 무상 의무교육이 확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값 등 연간 55만원이 면제돼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운영비만 내면 된다. 7차 교육과정이 고교2학년까지 확대돼 고교2학년은 선택과목을 향후 자기의 진로에 따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 신설-학생 선발, 교육과정 등 학교운영에서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자립형 사립고가 해운대고, 현대 청운고, 상산고 등 3개 고교가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된다.

### 건설·부동산

△국토이용관리체계 일원화-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구분없이 도시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1가구 1주택 거주 요건 신설-1가구 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서울 과천과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는 3년 이상 보유기간중 1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세가 면제된다.

△실거래가 과세-3개 이상 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기존 기준시가 기준에서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투기지역에 대해서도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면적에 관계없이 시가 6억원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된다.

### 환경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강화-공공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이 제한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 버스를 교체할 경우 천연가스 버스 등 무·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해야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연료 규제강화-대기 오염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짜 휘발유 등 불법연료 제조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공급·판매자 및 사용자에 대해서도 처벌한다.

△1회용품 사용규제-서점·약국에서도 1회용 봉투를 무상제공할 수 없게 되고 식당의 1회용 비닐 식탁보 사용도 금지된다.

### 세제

△근로자 소득공제액 확대-올해부터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이 많아진다. 유치원생 교육비의 경우 소득공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되며 중·고교생은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의료비는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직장인의 건강진단비도 의료비 공제 항목에 새로 포함된다.

△납세 가산세를 인화-국세를 법정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1일 0.05%에서 0.03%로 인하된다.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이 해당된다.

△자산소득 과세기준 변경-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으로 삼던 자산소득 과세가 개인별 과세로 전환된다. 이자나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해당된다. 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은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된다.

△국고금 e메일 고지-국세나 관세, 범칙금 등 각종 국고금의 납입 고지서를 e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은행에 가지 않아도 홈뱅킹을 이용, 신속하게 납부할 수 있다.

### 금융·증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작년까지 자동차사고 사망 때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위자료가 3200만원이었지만, 올해 1월1일부터는 4500만원으로 오른다. 또 20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28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교통사고때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등 소지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자산운용업법 시행-부동산이나 금·은등의 실물에 투자하는 다양한 형태의 펀드가 출현하며, 원금 보전이 가능한 장외파생상품이 판매된다.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강화-내년 6월30일부터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유지요건이 4%에서 5%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따라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 권고 대상이 된다.

△증시 배당제도 개선-액면가가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배당액을 알리는 시가배당률의 공시가 의무화된다. 배당결정기관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바뀌고, 배당결의 이후 배당받을 주

주를 확정한다.

### 일반행정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행-일반직 공무원 채용시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 만큼 다른 성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가 시행된다. 대신 96년부터 시행해 온 여성채용목표제는 폐지됐다.

### 교통

△자동차 등록신청 구비서류 간소화-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자동차등록신청 구비서류를 올해 1월 1일부터는 행정관청이 주민등록전산망 등 행정정보 또는 관련 전산자료망을 이용해 확인(소유권 이전시 계약서 등 최소한의 필요서류만 제출)한다.

△과속차량 처벌강화-현행 2단계인 과속 단속 기준이 3단계로 세분화된다. 현재 20km 이상 초과시 모두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을 부과했으나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한 때에는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고발)자 보상금 지급 중단-신고다발 지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2003년도 예산 미확보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고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중단된다.

## 생활정보

## 생활정보